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에 한끼당 2000원 지원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자체 추진
정부 사업과 별개 진행 ‘차별화’
대학 부담 ↓ 대학생·농어민 혜택

기본 한끼당 1000원 지원하고
농수축산물 사용 시 1000원 추가
학생에 양질의 식단 제공 기대

충남도가 한끼당 최대 2000원을 지원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자체 추
진한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4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올 상반기 중으로 대학과 함께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
부가 진행한 천원의 아침밥 1차 공모
결과, 도내 29개 대학 중 사업 참여 의
사를 밝힌 대학은 공주고대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4곳이다.

농식품부는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도내 대학
은 10곳이다.

도는 해당 사업이 한끼 기준 학생
1000원, 국비 1000원 외 나머지는 대학
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참여율이 저조
한 것으로 분석하고, 충남형 천원의 아
침밥 사업을 준비해 왔다.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
사업과 별개로 진행되며, 한끼당 최대
2000원을 지원해 대학의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도는 참여를 원하는 대
학에 한끼당 1000원을 기본 지원하고,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의 위용 멀리서 보면 섬들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 ‘격렬비열도’란 이름이 붙은 충남 최서단의 이섬은 중국과 인접한 서해중부 최 서단 영해기점 도서이다. 유인 등대섬인 북격렬비열도와 무인도인 동격렬비열도·서격렬비열도 등 3개의 섬이 삼각형태를 띄고 있다. 태안 신진도에 서 서쪽으로 55km 떨어져 수산자원과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충남도 토지관리과에서 지난 4월 14일 방문했다. <관련 기사 9면> / 사진 및 자료 제공 충남도 토지관리과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해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에는 추가로 1000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벼 재배면적은 13만 4000ha, 연간
쌀 생산량은 72만 7000톤으로 전국 2위,
돼지 사육 수는 230만 5000마리로 전국
1위, 한우와 닭은 각각 46만 7000마리,
2896만 4000마리로 전국 3위 수준이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 농어
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
로, 앞서 농식품부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학은 한끼당 최대 3000원을 지
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본교가 관외에 있는 캠퍼스를 포함한 도내 소재 대학교이며, 관외 소재 캠퍼스와 식당 회계를 통합

관리하거나 기숙사비에 아침식사 비용
이 포함된 기숙사 전용 식당을 운영하
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 여부는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로 원산지증명서
및 납품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사업량은 총 사업기간
중 최소 10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박 실장은 “도내 13만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에 동참
하는 대학 모두 적극 지원하겠다”며
“충남에서 생산한 양질의 식재료를 사
용하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도내 대학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
다”라고 했다.

/교육지원담당관 041-635-2142

일하면서 휴식 즐기는 ‘워케이션 충남’

상반기 참가자 선착순 모집
보령, 부여, 예산, 태안지역
근로자·프리랜서 등 누구나 참여



충남도는 ‘휴식과 일이 공존하는 여행
의 가치, 충남의 품격’을 비전으로 내
건 ‘워케이션 충남’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보령, 부여, 예산,
태안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
을 반영한 프로그램 상품(숙박+업무공
간+체험+관광+환경·사회·지배구조
(ESG) 활동)을 기획해 4월 25일부터 6
월 2일까지 매주 화~금(3박 4일) 운영
한다.

신청은 기업 재직자, 4대 보험에 가
입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참
가비 일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워케이션 충남 누리집
(www.worcation-cn.com)에서 온라인
으로 하면 되고, 지역별로 선착순 모집
마감 예정이다.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은 일
(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무형태 다양화 및 새로운 관광 트랜
드 수요로 주목받고 있는 일과 휴식,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의

미한다.
도는 일과 휴양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충남 워케이션
구축을 도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전 시군으
로 단계별 확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
으로 향후 도내에 워케이션 인프라가
조성되면 충남이 워케이션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과 휴양 연
계 체류형 지역관광 새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워케이션 충남
누리집이나 충남관광재단(☎041-330-
9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광진흥과 041-635-3884

잿더미로 변한 삶터 ‘온정’으로 다시 세웁시다

눈을 감으면 연기가 보이고 눈을 뜨고 타버린 집을 보면 눈물만 흐르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린 충남의 산불 피해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2일 충남 홍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홍성 45가구 67명 ▲보령 7가구 13명 ▲부여 3가구 9명 등 모두 54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삶터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며 실의에 빠진 우리 이웃이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금계좌 : 농협 301-0700-1212-01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남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산업용가스기업 외자유치	2면
충남혁신도시 기반 조성	3면
다문화가족 정착기	6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도의원 인터뷰 동행	15면

산업용 가스 세계 최대 기업 투자 유치

김태흠 지사 외자유치 미국 출장

린데와 1억 달러 MOU... 아산에 산업가스 생산공장 증설 프렉스에어서퍼스테크놀로지스 1000만 달러 투자

충남도가 산업용 가스 세계 최대 기업과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월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덴버리 린데 본사에서 산지브 람바 린데 회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린데는 아산 당정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만㎡의 부지에 디스플레이 고객 공급을 위한 산업 가스 생산 공장을 증설한다.

5년 이내에 1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할 계획이다.

주민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도와 아산시는 린데의 원활한 투자를

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도는 린데가 공장 증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하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생산 증대, 내수시장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린데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및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1879년에 설립해 전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생산시설 등을 가동 중이다.

지난해 기준 종업원 6만 5000명에 매출은 334억 달러(약 43조원)로 집계됐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투자 결정은 증가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시기적절하고도 과감한 결정”이라며 “우리 도는 린데를 비롯



충남도는 4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덴버리 린데 본사에서 린데, 아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 회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한 기업들이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린데와의 MOU 체결에 앞서 김 지사는 뉴욕 오렌지버그에 위치한 프렉스에어서퍼스테크놀로지스 본사에서 전자소재부문 존 서먼 부사장,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프렉스에어서퍼스테크놀로지스는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4995㎡ 부지에 반도체 스퍼터링 타겟 생산공장을 증축한다.

프렉스에어서퍼스테크놀로지스는 1000만 달러 이상의 다년간의 지역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 고용 확대와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57

김태흠 지사, 국방부 장관에 육사 이전 요청

24~27일 장관, 국무총리 면담 석탄발전 특별법 등 현안 논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도 현안을 풀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김태흠 지사는 4월 2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을 요청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이 장관과 면담을 갖고, 육사 충남 이전, 국방 관련 공공

기관 충남 이전 등 국방클러스터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0월 가진 독대와 지난 2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육사 충남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논산에는 국방대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이, 계룡에는 3군본부 가 위치해 있다.

4월 25일 도정을 방문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을 논의,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4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4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농식품부 사업 참여 대학은 최대 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서는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공보관실 041-635-4917

도지사 결재권 절반 간부공무원에 위임

자율·책임 도정 구현 현안 집중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결재권 절반 가까이를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넘긴다.

간부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현안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지사, 실·국·원·본부장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도정 운영, 업무 처리 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내놨다.

도는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45%)을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예산안 편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협약,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남기고, 국제교류 기본계

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은 넘기기로 했다.

결재권 위임과 함께 정책적인 권한도 위임한다.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는 36개에서 23개로 13개(36%)를 줄인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정 현안 TF를 구성·운영한다.

실·국·원·본부장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추진과 도정 현안 TF 운영 결과는 곧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정책적 환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4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시 실·국·원·본부장이 맡은 도정 중점 관리 대상 과제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자치행정과 041-635-3598

발전소 주변지 기업 우대기준 개선

건설산업 영향 분석 연구용역 향후 개정안 마련, 정부 건의

충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선 정책’ 수립에 나선다.

도는 4월 18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LNG 전환이 지역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도내 있어 직간접적인 환경 피해를 받아 온 데 반해 발전 3사의 지역 수주율은 7% 내외로 매우 저조함에 따라 발전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 기업의 수용력을 바탕으로 입찰 시 적절한 우대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발전 3사의 건설공사 발주 및 참여 사례 ▲전력수급기본계획 변화에 따른 건설공사 물량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다. 도는 용역 결과와 전문가·관계자 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7월까지 발전소주변 지역법 시행령 및 지침의 전략적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설정책과 041-635-4624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우리 충남과 함께해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기부활동

여기서! 인터넷이 편리하면? 고향사랑기부금 (https://ilovegohyang.go.kr) 직접하기가 편리하면? 가까운 농협 방문

충청남도 또는 15개 시군 중 원하시는 곳에 기부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500만 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외

이렇게! 주소지가 천안이라면? 충청남도 본청과 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 어디든 가능! 주소지가 충남도 내가 아니라면? 충청남도 본청과 15개 시군 어디든 가능!

충남사랑에 기부하신 분을 위한 답례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충남의 향과 빛이 가득한 고향의 선물

이렇게! 기부금의 30%에서 포인트를 드려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포인트! 포인트를 모아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정주 기반 조성·공공기관 유치

충남도 실국장 정례 브리핑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혁신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도시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정주 여건과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파급력 큰 공공기관을 도내 유치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4월 18일 도청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맞춤형 전략 추진 및 정주기반 구축으로 충남혁신도시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우선 도는 오는 2030년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할 전망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도시 확장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이달부터 6월까지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도시 개발 여건과 주변 도시 현황을 살피고 미래 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대응한 도시 발전 방향 및 지표 설정할 계획이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 내포 종합병원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525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 건립을 추진해

내포를 포함한 보령·태안·청양 등 충남 서부권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족한 상업시설로 인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지역 소비자를 붙잡기 위한 복합 소규모 유치도 지난달 첫 전담(TF) 회의를 열고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제2차 전담 회의를 개최해 민간사업자 유인책을 모색하고 대형 쇼핑몰 관계자 면담을 진행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화 분야 고교 및 영재학교, 대학 유치 활동도 지속해 교육 환경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천국도시’ 사업을 추진해 현재 70.1km(28개 노선) 길이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으며, 공영자전거 시스템인 유바이크(U-bike) 서비스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주민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공원 흥예공원을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이 기증한 조형물 및 나무를 일부 공간에 심은 도민참여숲을 조성, 지역의 명소를 가치를 높이고 상징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헌수목은 왕벚나무·단풍나무·느티나무·대왕참나무·메타세콰이아·이팝나무·유실수·철쭉수 등 8종 1000주이며, 헌수목 가격은 117만 원부터 297만 원으로 전체 금액은 20억 원 규모다.

도민 참여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며, 현금(수목 구매 비용) 또는 현물(수목)로 가능하고 접수는 충남혁신도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적용 기관(13개)

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 대형기관

- ①한국과학기술연구원 ④한국원자력연구원 ⑦한국건설기술연구원
-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⑤사회보장정보원 ⑧우체국금융개발원
- ③한국환경공단 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⑨한국국방연구원

본사 종사자 100명 이상 대형기관

- ⑩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⑫국민체육진흥공단
- ⑪한국우편사업진흥원 ⑬한국어촌어항공단

내포 종합병원·흥예공원 명품화

도민 헌수목 흥예공원 내 식재

인구 증가 대비 경계 확장 검토

시조함, 흥성군, 예산군으로 하면 된다. 헌수목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는 현금의 경우 최저 기부금액이 50만 원으로 다수 기부자를 묶어 나무를 사고, 현물(수목)은 생목 또는 수형 등 헌수목 계획 부합 여부를 전문가가 확인한 후 접수한다.

도는 앞으로 흥예공원 명품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내 기관장 간 업무협약, 헌수목 전달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 선도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정주 여건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총력

중점 유치 대상 34곳 공식화

드래프트제 적용 기관 13곳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

도는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이 배제됐던 사실을 바탕으로 후발주자인 우리 도에 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즉 드래프트제를 적용해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 특성·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능군 10개, 문화·체육 기능군 7개, 중소벤처 특화 기능군 4개 등도 유치한다.

도는 임차기관 우선 이전이 원칙인 정부 기조에 대응해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10개 혁신도시에 708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점을 감안, 임차기관 집단 이전을 위한 합동 임대청사 건축

비(국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발맞춰 혁신도시 내 도유지 및 매각되지 않은 부지 등을 활용,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력지구화(化)도 꾀한다.

그동안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는 대통령,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드래프트제 반영을 강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실무부서인 공공기관유치단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주 2회 이상 방문해 건의·유치 활동을 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민의 의지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유치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대정부 건의 및 공공기관 경영진·노조 방문, 지역 국회의원 연계 정책 토론회 등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 이전을 앞당길 방침이다.

송 단장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도가 확실한 도약을 이뤄내야 할 시기”라면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충남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도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유치단 041-635-3381

도청소재 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를 소개합니다.



혁신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도약하고 있는 충남혁신도시.

다양한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과 더욱 가깝게. 다채로운 문화 및 체육시설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수도권 수준 종합병원 개원으로 더욱 든든하게. 대단지 주택 마련으로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충남혁신도시를 지금 만나보세요!



서울로의 이동시간 '45분' 실현

서해선-경부고속선 KTX 직결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개원

2026년 초, 525병상 보유한 대형종합병원 개원 예정



문화·예술·체육을 한곳에서 향유

충남도서관 개관, 충남미술관, 충남 예술의전당, 스포츠 센터, 골프장 개관 예정



도심 속 힐링을 선사하는 흥예공원

10만 평 규모의 숲과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리모델링 중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

Chip & Mobility 영재고, 대학교(공동캠퍼스), 대학교(내포캠퍼스)

대한민국 신도시의 새로운 기준 충남혁신도시



단국대 캠퍼스에 복합 도시첨단산단 조성

도·정부 사업비 504억 투입
유휴공간에 산학연 혁신허브
주거·문화·복지 플랫폼 구축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내에 미래 혁신을 이끌어 갈 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된다.

충남도는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2023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공간(산학연 혁신허브)과 주거·문화·복지시설을 갖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 입지는 혁신 환경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심을 선호하는 만큼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대학을 새로

운 혁신성장생태계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천안캠퍼스 내 사업부지는 총 2만 1453㎡이며, 이 곳에는 연면적 1만 9997㎡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가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천안캠퍼스 내에 첨단 부품·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업종과 124개 기업, 연매출 2000억 원 이상, 누적 고용창출 1000명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도와 단국대는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해 기업유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하반기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지원과 041-635-2227



산학연혁신허브관 조감도.



충남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43회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4월 20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게'를 표어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개회 선언, 인권헌장 낭독, 표창장 수여, 어울림 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어울림 대회에서는 지역별 노래 경연대회 등을 진행,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이경란 충청남도서관장 취임

“독서문화 진흥에 힘쓸 것”

이경란(사진) 신임 충남도서관장이 4월 20일 취임했다.

대전 출신인 이 관장은 1987년 사서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 동구 용운도서관장, 대전 유성구 도서관장, 유성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관장은 “충남도서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충남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나병준 전임 관장의 퇴임식 행사는 4월 19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동료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충남도서관 041-635-8023

공고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아래와 같이 통합변경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도정게시판



10월까지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충남소방본부는 각종 출동으로 지친 소방공무원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버스킹(거리공연)'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버스킹'은 도내 전 소방서를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소방서를 방문해 40여 분간 야외 음악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정신건강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리에 도움을 주는 치유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공연은 도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민성 재즈밴드'와 협업해 진행하며, 푸드트럭도 함께 지원해 소방관들의 편안한 공연 관람을 도울 예정이다.

4월 17일 첫 번째 '찾아가는 버스킹'이 시작된 천안 충청소방학교에는 김연성 충남소방본부장이 방문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14

귀어학교 9기 교육생 모집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5월 12일까지 귀어학교 9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의 기초 수

산업 이룬 교육을 바탕으로 어촌 이해도 향상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화합여건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격은 귀어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귀어민 및 예비귀어인이며 총 25명을 선발한다.

교육은 수산 기초 이론과 어촌살이 캠프 현장 실습으로 각 2주씩 총 4주간 진행된다.

수산 기초 이론은 충남귀어학교 기숙사에서 합숙교육을 받게 되며, 어촌살이캠프는 어선 어업과 맨손 어업 등으로 나누어져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청년 귀어인 모집을 위해 40대 이하 지원자에게 서류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내 간담회 개최 및 청년 정착 모니터링 등을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이나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월 21일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제8기 귀어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7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충남도는 6월 30일까지 '제11회 충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한다.

도와 대전지방기상청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데이터 산업 진흥이 목적이다.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수상 팀은 상금 외에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충남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해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회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7년 이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6월 30일까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데이터담당관 041-635-3203

대규모 지진 대비 합동훈련

충남도는 4월 19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 소방본부, 도경찰청 및 관계기관,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대규모 지진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청양지역에 규모 6.0, 최대진도 VII의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 초기 대응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운영까지 인명피해와 건물 및 도시시설물 파손, 정전, 화재 등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건축물 붕괴로 사상자와 매몰자 발생 시 긴급구조지원단 가동(소방본부),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및 응급의료소 운영 등 긴급구조·구급 체계도 점검했다. /자연재난과 041-635-2382

충남공무원노조 쌀 14톤 구매

충청남도공무원노조는 4월 17일 농협충남세종본부에서 지역농산물 구매 및 소비촉진 업무 협약을 갖고 충남의 명품 브랜드인 청풍명월 쌀 14톤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충남노조는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농촌봉사 활동 등 농촌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정희 충남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역 농가와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노조가 함께 하기로 했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041-635-5815

청렴사회민관협 청렴문화 확산

청렴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내 17개 기관이 참여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4월 20일 감사위원회실에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천안·아산시, HD현대오일뱅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충남약사회 등 각 기관별 실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올해 '기관 1실천과제' 및 하반기 청렴 클러스터 캠페인 전개 등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11개 기관, 민간부문 6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반부패, 청렴 거버넌스 조직이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 041-635-5423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내선 041-635-2035



예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속도

도·지역 18개 대학·기업과 협약 연구 장비, 창업 프로그램 제공 약초생산 전용 첨단농장도 조성

충남도 내 18개 대학·기업·기관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는 4월 24일 예산군청에서 예산군, 도내 18개 대학·기업·기관과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및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힘을 합친다.

현재 도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4월 13일 예산군, 충남농업기술원, 충남테크노파크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장비·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시설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천연물 소재 콘셉트로 약초생산 전용 첨단농장(생산, 공공바이오과운드리(연구·시험생산)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까지 231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삼교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그린바이오 클러스터(166만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및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 내에 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총 1만 2697㎡(약 3840평) 규모로 벤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내 성장가능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그린바이오 창업펀드(가칭)를 100억 원 규모로 마련해 전략적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는 충남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에 참여한 유관기관을 비롯해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바이오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학·기업·기관 관계자는 박지훈 공주대 기획처장, 백동현 단국대 산학협력단장, 김

종해 선문대 산학협력단장, 김규현 연암대 기획처장, 이석우 한국생산기술원 연구소장,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김창용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김태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강희준 충남창조경제센터장, 이영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전략실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장, 김창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신성식 한국벤처투자 이사, 유상훈 JB벤처투자 대표이사, 이호재 ㈜와이앤아처 대표, 문지은 ㈜스타벤처스 대표,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 정경민 도울 국제특허법률 대표이다.

/기업지원과 041-635-3435

배우 박순천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캠페인

충남 금산 출신인 배우 박순천(사진) 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의 여섯번째 주자로 나섰다.

박 씨는 ‘전원일기’를 비롯해 ‘미스 함무라비’, ‘내 눈에 콩깍지’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순천 씨는 “내 고향 충남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함께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라며 “충남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며,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담례품의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 (<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을 지속해 기부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에는 앞서 배우 강부자 씨와 정흥채 씨, 나태주 시인, 개구무민 안소미 씨, 소리꾼 장사의 씨가 참여한 바 있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3481

충남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모집

도 농기원 5월 모집 6월 선발 도민·도내 귀농 희망자 대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월 31일까지 ‘2023 충남썬농 확산 제1기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이론부터 현장실습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도내 거주자 또는 충남지역 스마트팜 귀농 희망자로,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심사, 면접을 거쳐 오는 6월 중 40명 내외로 교육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선발한 교육생을 대

상으로 7월부터 6개월 동안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스마트팜 이해·환경·영양·방제 관리 등 입문 이론교육 1개월(시간) ▲선도농가-교육생 매칭을 통한 농장 현장실습 교육 5개월(시간)로 구성했다.

교육생들에게는 교육 수강료 전액 도비 지원과 함께 입문 교육 기간(1개월) 중 숙식 또는 교통비 지원, 현장실습 교육 기간(5개월) 중 교육훈련비(월 최대 100만 원)를 지급한다.

현장실습까지 마친 수료생들에게는 국·도비 정책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203

맛·향 뛰어난 충남술 10종 뽑는다

탁주류, 약·청주류 등 품평회

충남도는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과 도내 상위 10위권의 우수한 전통주를 뽑는 ‘2023 충남술 톱 텐(TOP 10) 선정 품평회’를 진행한다.

이번 품평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지역 전통주를 복원·계승하고 우수한 전통주를 소개함으로써 소비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다.

참가 자격은 현재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도내 소재 양조장 업체로, 술 제조 원료 중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용이 70% 이상인 상표 등록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지난 2020년 충남술 톱 텐(TOP 10) 선정 주종은 참가할 수 없다. 신청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로 4월 26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농촌활력과 041-635-4078

2023 충남 사회조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충청남도를 만듭니다

조사목적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인터넷 조사 2023년 4월 19일 ~ 4월 30일 방문면접조사 2023년 4월 20일 ~ 5월 10일
응답혜택	소정의 담례품 증정 조사대상 도내 15,000표본가구 (만 15세 이상)
조사내용	총 11개 분야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통합, 도정특성 등)

※ 통계법 제 18조 근거한 조사로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 관

조 사

설계/분석

홍성 산불 피해 복구작업 본격화

이재민 53가구 91명 집계 조립주택 등 거주시설 지원

홍성군이 서부면 일대를 덮친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해 거주시설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

군은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해 우선 복구에 나선다. 4월 18일부터 피해 주택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들어갔으며 신속히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사에 착수해 빠르면 이달 말 1~2가구가 삶의 터전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면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은 53가구 91명으로 거주시설 복구방안에 대하여 수요 조사한 결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31가구(32동* 1가구에 4인 이상 1동 추가) ▲공공임대주택(LH) 지원으로 3가구 ▲기타 지원에 19가구가 나타났다.

군은 우선 이달 말까지 시급한 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끝마칠 계획으로, LH 공공임대주택(내포신도시)을 원하는 이재민 3가구는 지난 13일 입주 희망 동호수를 지정하고 곧 입주 절차에 들어가며,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2년까지 임대료가 지원된다.

주거용 조립주택의 경우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 냉난방기 등이 갖춰진 27㎡ 규모로, 홍성군은 이재민들과 철거 일정 협의에 나섰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조립주택을 선구매하고 사전 제작을 의뢰하여 주택철거 후 집터가 갖춰지는 대로 신속히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홍성군 서부면 대흥동마을의 전소 주택을 철거하고 있다.

획이다.

피해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재민들은 서부면 문화누리센터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 16가구 25명이 머물고 있고, 반파된 피해주택 및 가족·친척, 지인 집 등 관내에 19가구가, 관외, 병원, 회사숙소 등 기타 시설에 18가구가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주택은 전파 41동(빈집 3동) 반파 12동 등 총 53동으로 첫날 불길에 강하게 번졌던 서부면 양곡리에 22동의 주택이 불에 탔고, 아사리 11동, 남당리 7동, 이호리 5동, 거차리 4동, 중리 3동, 판교리 1동 등 피해가 조사됐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 벗어나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이번 주까지 부서별 복구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산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 산불의 잠정 피해액 규모는 약 287억원으로 가축 68,318마리, 농작물 2만 8581㎡, 산림작물 64만 3747㎡ 등 가장 피해가 큰 사유시설 피해액은 아직 집계 중이며, 주택, 창고, 축산시설, 농자재 등 피해 사유시설은 총 1043건에 피해자는 서부면 214명, 결성 1명, 관외 72명 등 총 287명으로 조사됐다.

홍성군은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하에 5월 31일까지 성금 모금을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 계좌(농협 301 0700 1212 01)를 통해 동참할 수 있고, 기타 성금 관련 상담은 복지정책과(041-630-1595)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제공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4년 만에 재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 공연, 체험프로그램 다채로워 안전관리에도 만전 936명 투입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돼 운영됐던 충남 아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아산시는 그동안의 축제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되찾는 축제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1년간 이어져 온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 탄신일을 전후해 열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축제가 취소됐고 지난해에도 대안행사로 대체됐다. 코로나19 예방조치 완화로 올해는 4년 만에 원래 행사의 취지를 살리겠다는게 아산시의 생각이다. 올해 열리는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이순신종합운동장과 현충사, 온양온천역, 곡교천 등에서 진행된다.

전문가들의 고증으로 재현한 100여 명의 기마대와 기수단으로 구성된 삼도수군통제사의 출정행렬을 시작으로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축제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된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에는 국방부 전통의장대를 비롯해 여군의장대, 육군 양

악대, 육해공군 해병대 군악 의장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특수전사령부 군악대, 미8군 군악대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해외 유명 경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선에 진출해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은 세계 태권도연맹 시범단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주제로 퍼포먼스 펼친다.

또 댄스 그룹 원밀리언과 저스트절크의 공연도 진행된다. 이들은 충무공의 대표 전술 중 하나인 ‘학익진 전법’을 이용한 스트리트 댄스 공연을 펼친다.

국립국악원은 성웅 이순신 축제를 위해 ‘이순신 찬가’를 최초로 창작했으며 세계합창올림픽 4관왕에 빛나는 국가대표 소프라노 그룹 ‘하모니이즈’는 뮤지컬 ‘이순신’ 테마곡 ‘나를 태워라’를 열창할 예정이다.

이밖에 백의종군길 걷기대회와 마라톤대회, 마상무예 공연, 기승체험과 활쏘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진행되는 지역 최대 축제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모범운전자회 등 6개 단체 936명의 안전운영요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산시 제공



2017년 성웅 이순신 축제 모습

2026년 원예치유박람회 ‘국제공인 획득’ 시동

도·태안·AIPH 한국위원회 협약

충남도가 ‘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국제공인 획득 등 성공 개최 추진을 위해 태안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한국위원회와 손을 맞잡았다. 도와 태안군, AIPH 한국위원회는 4월 14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태안군, AIPH

한국위원회는 행사 성공 추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공인 및 심사·계획·감독·운영·사후관리 ▲박람회 전반 운영 조력 ▲국내외의 자료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공동 협력기로 했다.

국제박람회 공인은 AIPH에서 받는다. AIPH 공인이 있어야 ‘국제’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예산업 관련 국제(외국) 전문가 참가 확대 등을 이끌 수 있다.

AIPH는 국제비정부기구다. 31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으며, 국제행사 승인과 원예산업 정보 교류, 장식용 나무·식물·꽃 수요 증가 촉진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꽃지해변 일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과 041-635-4042

모성

지구촌 함께해요 다문화가족 충남정착기

캄보디아에서 살다 온 나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미용사였다.

3년 동안 미용사로 일하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지 어언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선 언어와 문화는 적응에 큰 어려움이지만, 좋은 이웃과 친절한 행정복지센터, 무엇보다 나와 같은 고향에 살던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고 적응에도 수월했다.

가정을 이루고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까지 총 세 자녀의 엄마가 됐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3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삼화/맹주석

로 하교 후 집이 아닌 학원에 가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고,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를 돌보는 것은,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들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심리적인 압박감과 외로움을 조금씩 털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내 감정에 치우쳐 자식들을 대하기보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또한, 캄보디아에 있는 동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과 나의 세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자신의 인생보다 자녀의 인생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이 아닐까? 오늘도 집에서 기다리는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지친 몸을 뒤로하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가 타오른다.

/공주시가족센터 이은주

청양 ‘맥문동’ 수확... 호흡기질환 탁월

면역력 향상, 체내 유해 물질 제거 폐, 기관지 등 염증 완화

청양지역 농가들이 폐, 기관지 등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좋은 맥문동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

올해 청양 맥문동 수확량은 평년작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동기간 극심한 저온과 가뭄으로 덩이뿌리가 잘 형성되지 못했던 지난해보다는 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최대 생산지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청양 맥문동은 4월 중순 수확 후 포기를 나눠 다시 심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농가들은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분주하게 일손을 움직여야 한다.

맥문동은 덩이뿌리를 한약재나 차 재료로 이용하는데 동의보감에는 ‘맥문동은 천문동과 함께 모두 조병(燥病)을 치료한다. 달여서 먹거나 환을 만들어 오래 먹으면 좋다’고 기록돼 있다.



폐나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맥문동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기관지 염증 완화하면서 면역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맥문동 잎은 사계절 푸른 녹색이나 황백색을 띠어 정원이나 공원에 조경용으로 많이 활용되며 덩이뿌리는 볶음 차, 분말, 진액 스틱 등 다양한 가공상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맥문동을 생산하려면 4월 중순 시기에 맞게 수확해야 하고 수확 후 10일 이내에 다시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양군 제공



‘금산인삼·보령머드축제’ 우수성 인정

문화관광축제 지원공모 선정
각각 1억 5000만원 지원 확보

금산인삼축제와 보령머드축제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도는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2023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에서 두 축제가 선정돼 각각 국비 1억 5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53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통합마케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최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한 결과 충남 2개를 포함해 전국 6개 축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통합마케팅 지원분야에선 금산세계인삼축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제, 보령머드축제, 시흥갯골축제가 선정됐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의 경우 춘천마임축제와 포항국제불빛축제,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이 뽑혔다.

도는 그동안 축제에서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방문객 편의 제공 등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고, 올해 과제 지원사업 공모 기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게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산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등을 토대로 금산세계인삼축제 글로벌 온라



보령머드축제 홍보 그림.

인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령시에선 보령머드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및 브랜드 강화, 행사 공식 브랜드 아카이브 채널 구축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충남을 방문해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 041-635-3892

튤립·목련·홍가시... 태안 봄 꽃 축제 풍성

코리아플라워파크·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 등 관람객으로 들쭉

충남 태안군이 봄을 맞아 꽃 축제로 들쭉이고 있다.

코리아플라워파크 등 태안군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에서 이달부터 튤립과 목련, 홍가시 등을 주제로 한 봄꽃 행사가 펼쳐져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서해안 3대 낙조로 유명한 꽃지해변 인근 코리아플라워파크에서 열리는 세계튤립꽃박람회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축제로 플라멩고, 람바다, 레드프라우드 등 전 세계 200여 종의 튤립 200만 송이를 감상할 수 있다.

대지에 펼쳐진 카펫 문양의 튤립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성돼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며, 나무와 하트 등 갖가지 조형물들이 곳곳에 있어 어디서나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축제기간 중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풍처럼 고운 붉은 빛을 띠는 홍가시 나무.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에 위치해 있다.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제6회 목련 축제가 열린다.

목련을 주제로 하는 축제는 국내에서 천리포수목원이 유일하다.

공개지역인 밀려 가든과 평상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교육·연구용 지역인 목련원과 목련산, 예코힐

링센터 3곳을 추가 개방해 축제가 진행된다.

남면 청산수목원에서는 다음 달 29일까지 ‘홍가시 나무 전국’ 축제가 열린다.

단풍처럼 고운 붉은 빛을 띠는 홍가시 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최고 수령과 크기를 자랑한다.

/태안군 제공

제철 맞은 ‘당진 장고항 실치’

비타민A, 오메가3 영양 풍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이 제철을 맞은 실치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시는 20일 석문면 장고항 주변 식당가에 독특한 향과 빛으로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치’가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소문나면서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진의 9미(味) 중 하나인 실치는 비타민A와 오메가3 등 영양성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고항 주변 식당가에서는 갓 잡아올린 싱싱하고 향긋한 실치의 참맛을 즐길 수 있다.

실치는 회무침, 된장국, 전 등의 요



갓 잡아 올린 장고항 실치 모습.

리로 사용된다.

흰메도라치 새끼로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실치는 당진 장고항 마을에서 처음 먹기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빨리잡히고 있어 성어기 이전인 4월을 넘기지 않아 참맛을 볼 수 있다.

/당진시 제공

충남도립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무령왕과 왕비, 금동신발을 신고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다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11) 금동신발

무령왕과 왕비의 사랑은 부러운 일이에요. 살아 생전에도 죽은 후에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두 분은 두려운 저승길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무령왕과 왕비의 신발을 보시죠. 참 화려하네요. 금동으로 만든 신발이랍니다. 왕과 왕비의 신발엔 꽃과 봉황이 각기 표현된 육각형의 멋진 무늬가 반복되어 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왕과 왕비의 발 크기가 크다고요? 정말 크죠. 신발의 길이가 350mm나 됩니다. 왕과 왕비는 발이 컸던 걸까요? 학술적으로 이러한 신발은 평소에 신던 것이 아니라 장례용품으로 알려져 있

어요. 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한 후 금동신발 속에 나무껍질과 천을 깔창으로 깔아서 발과 금동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 스파이크 신발이라고요? 그 말도 맞아요. 왕과 왕비의 신발 바닥에 10개의 못이 박혀 있죠. 이러한 신발의 용도를 추측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고구려 고분벽화인데요. 고분벽화에 이러한 신발을 신은 말 탄 무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마부대의 전투용 신발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저 충나미는 웬지 저승길과

관련된 게 아닐까 상상하게 됩니다. 추구화를 생각해 보세요. 잔디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신발 바닥에 스파이크가 없잖아요. 금동신발도 그런 용도가 아닐까요? 저승길이 차가운 얼음바닥처럼 미끄럽기 때문에 무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신발에 못을 박았나 봐요. 다른 이유는 여러분 상상에 맡겨 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금동신발은 죽은 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승을 떠날 때 함께하는 유물인 셈이네요. 무령왕과 왕비는 멋진 금동신발을 신고 함께 저승으로 걸어갔을 겁니다. 함께 하는 저승길은 행복했겠죠. 생각해 보면 저승길도 이승의 시골이나 도시처럼 크고 작은 길로 이어져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거쳐 낯선 이도 만나고 신라인도 고구려인도 만났을 겁니다. 저승길은 이승



무령왕 금동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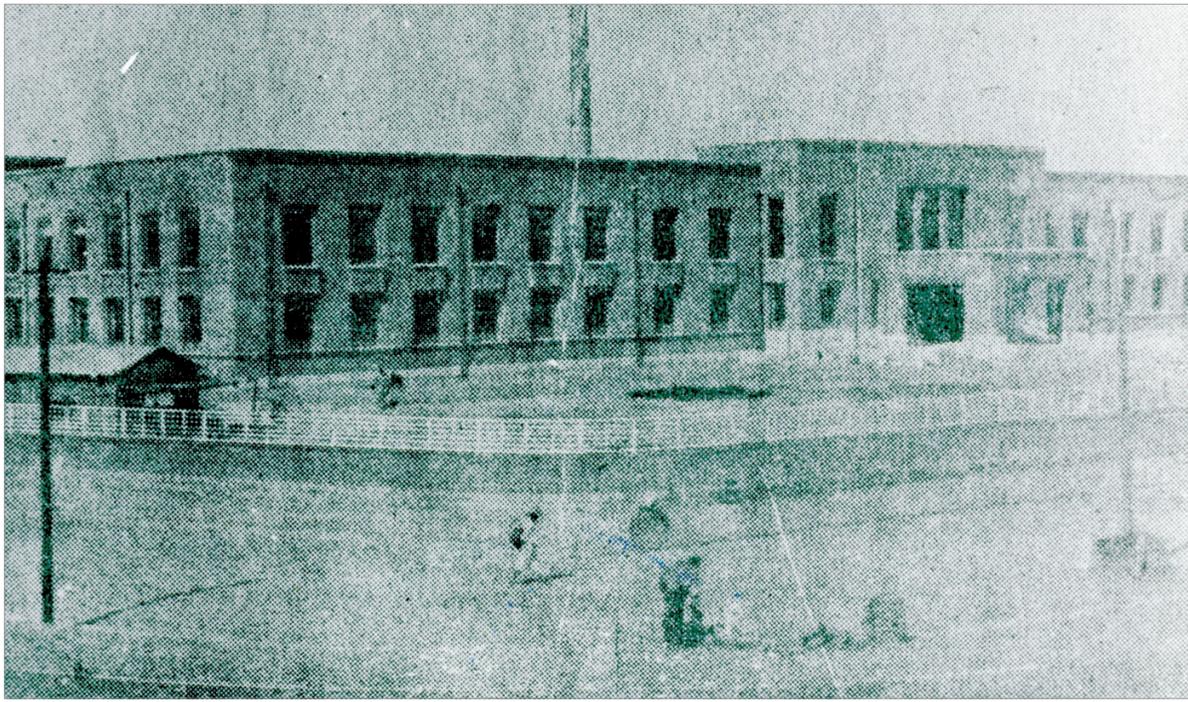
무령왕비 금동신발

과 달리 사람과 사람을 맺어 주는 곳입니다.

그 길이 이승처럼 물고 뜯는 싸움의 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끼리 흘리고 미워하는 증오의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없죠. 이승처럼 백제인과 신라인, 그리고 고구려인이 뜻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짐승처럼 주리를 뜨는 그런 길이라고는 차마 상상할 수 없어요. 그 길에선 삼국의 모든 이는 미워하고 싸우기 위

해 마주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의지해 사랑하려고 아득한 옛적부터 찾아서 만난 이웃들입니다. 저승길은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걸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도 있어요. 흔히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지요. 무령왕과 왕비는 금동신발을 신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1932년 준공된 충청남도청 전경.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일제 강점기 당시 건립된 전형적 관공서 형태인 'ㄷ'자 형태의 평면 구성이며, 외부 마감은 당시 유행하였던 밝은 갈색의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하였다. 1층 내부의 벽면을 요철 모양으로 파내어 장식하였고, 기둥과 기단의 각을 곡선으로 처리하였다. 1960년대에 넓은 창을 낸 지붕형태로 3층을 증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 정부청사로 잠시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등록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강철교 公州 민심 달래고 도청 이전 강행

격동의 충남 100년

충남도청, 大田(대전) 80년

충남지사 조선인→일본인으로
지역민 격렬 저항 '교육책'
금강철교 건설·교육기관 설립도

1932년 10월 1일 도청 이전식
6·25당시 임시중앙청사 역할
2012년 내포 이전까지 8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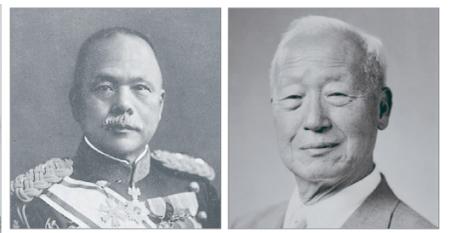
1931년 9월 22일 우기키 조선총독은 유진순을 해임하고 오까사키 데스로를 충남지사로 발령냈다. 조선인 지사를 일본 지사로 바꾼 것은 그만큼 도청 이전을 강행하고 한편으로는 공주 지역민들의 민심을 다잡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오까사키 지사는 금강에 철교를 놓아주는 것을 비롯 도청 대신 학교를 많이 세워 공주를 교육도시로 만들 것을 총독부에 건의했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금강철교 건설비로 10만원을 지원했고, 교육기관 설립에도 적극 나섰으며 장마철이면 늘 수해를 입는 공주시내를 가로지르는 제민천 제방 축조에도 20만원이 하달되었다.

지금도 공주가 교육도시로 손꼽히는 것도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고 공주 금강철교는 도청과 맞바꾸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공주의 명물이 되었다. 특히 공주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공산성과 어우러진 금강철교를 부각시키기 위해 야간경관 조명을 실시,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강철교 역시 공주가 도청을 빼앗긴 선물이란 데서 역사적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공주 지역민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1932년 9월부터 도청 이전 작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삿짐을 나르던 첫 날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 공주시 제2수원지가 있는 길목의 도로를 파헤쳐 놓아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경찰은 이 일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로 파손자를 색출하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공주와 대전의 경계를 이루는 삼정교 고개에 돌무덤을 높게 쌓아 놓는 바람에 이삿짐 차량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오까사키 충남지사는 대전-공주간 도로 곳곳에 24시간 경비 경찰을 배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주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게 하려고 야간을 이용하여 이사를 했는데 제일 힘든 작업은 도청 회계과에 있던 대형 철제금고를 옮기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 금고를 운송할만한 트럭이 없었기 때문에 인부들 여러 사람이 트럭에 타서 금고가 커브를 돌거나 급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손으로 붙들고 대전까지 와야 했다.

이렇게 공을 들여 금고 수송작전을 무사히 마치자 오까사키 충남지사는 여기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20원을 팀으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1932년 10월 1일 낮 12시에 충남도청 이전식을 개최하면서 충남도청의 '대전시대' 막을 올렸다. 이날 이전식에는 우기키 조선총독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이어 오까사키 충남지사, 김갑순 참의 등이 도청 현관에서 테이프 커팅을 했다. 이로부터 충남도청은 2012년 내포로 이전하기 까지 만 80년



우기키 가즈키 조선총독, 이승만 대통령

◀ 금강철교 개통식(1932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일제는 충남도청 대전 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공주에 금강철교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강철교는 1932년 1월 2일 착공하여 1933년 10월 23일 준공했다. 금강교, 금강대교로도 불리는 금강철교는 철골조 구조의 철교이지만 기차가 다니지는 않는다. 당시 철교는 대부분 철도교로 건설되었지만 금강철교는 도로교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공법으로 건설되었다. 금강철교는 한국전쟁 때 교량의 2/3 가량이 파괴되었다. 1950년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군이 방어선 구축 작전을 펼치며 다리를 폭파했다. 이후 금강대교는 1952년 복구공사에 들어가 1956년 9월 공사를 마쳤으며, 2002년 12월 교량을 보수했다. 민족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로 당대 교량 건설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간 대전에서 충남도의 총체적 행정기능을 수행했으며 특히 6·25 때는 정부의 피란으로 도청 청사가 임시 중앙청으로 변신해야 했다. 도청의 각 국장실은 각부 장관실로 바뀌었고 2층의 대회의실은 피난 온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역할을 했다. 특히 1950년 7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임시회의에서는 191명 의원 중 84명만 참석했는데 나머지 62명은 예고없이 한강 철교를 폭파하는 바람에 남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날 임시회의는 정원미달로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신익희(申翼熙)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정부측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신성모 국방장관, 임병직 외무장관 등 거의 모든 장관들이 다 출석했고 특별히 미국의 참전을 설명하기 위해 무초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한다고 공언해 놓고 국회 통보도 없이 대통령 혼자 서울을 떠난 것과 한강 철교 폭파로 남하하지 못한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의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가 일어난지 불과 이틀만인 6월 27일, 북한군의 공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새벽을 이용하여 극비리에 열차편으로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온 것이다. 대전역에는 당시 이영진(李寧鎭) 충남지사와 윤치영 내무장관이 대통령을 영접했는데 대전역에는 삼엄한 경비령이 내려졌고 대전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열차도 운행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마음을

돌려쳐 서울로 가겠다고 하여 모두를 당혹케 했으나 주한 미대사관의 드림라이트 참사관이 찾아와 트루먼 미 대통령이 미군의 즉각적 파병을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서울로 가겠다는 지시를 취소했다. 그리고는 정부를 대전으로 옮길 것을 명령하고 충남도청을 중앙 청사로 지정했다. 또한 충남도지사 관사를 임시 대통령 관저로 사용키로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오면 곧 전세가 역전되어 서울을 수복하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전세가 더욱 악화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7월 4일 밤 충남도지사 관사를 나와 대구로 내려갔다. 이번에도 극비리에 이루어졌고 6·25사변이 터진 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7월 8일 대전에서 대통령 명의로 선포되었으나 실제로 대통령은 대구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 7월 14일에는 북한군 탱크가 한강을 넘어 안양까지 침략하는 등 정세가 더욱 긴박해지자 대통령은 충남도청에 있던 정부의 철수를 명했다. 정부의 대전 철수는 비밀리에 하지 않고 공식 발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임시 중앙청사 역할을 하던 충남도청은 18일만에 그 자리를 내주고 충남도청은 9·28 수복 때까지 적의 침략에 신음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변평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충남도청 금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금고는 1928년 제작되어 충청남도 공주청사(1928-1932) 시절부터 대전, 내포까지 약 120년간 도청에 남아있었다. 도청이 2013년 내포로 이전할 때 옮겨졌다 대전 구청사를 '충남 옛 도지사실' 전시관으로 개편할 때 다시 옮겨왔다. 그리고 2018년 충남 옛 도지사실이 폐관되면서 공주 충남역사박물관에 전시되면서 원래 있었던 공주로 되돌아왔다.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새들도 쉬어가는 충남 최서단 3형제 섬

격렬비열도라는 이름은 멀리서 보면 모여 있는 섬들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격렬비도, 격비도 또는 격비라고도 불린다. 태안의 신진도에서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다. 바닷새들의 보금자리로 섬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수산자원과 군사적 요충지로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다.

충청남도의 최서단으로 유인 등대섬인 북격렬비도와 무인도인 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이 삼각형태를 이루고 있다. 각 섬의 최고봉은 동격렬비도 133m, 서격렬비도 85m, 북격렬비도 101m로 비교적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평지가 거의 없다.

700만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등대건물이 한데 어우러져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2002년 북격렬비도를 전국에서 125번째로 특정도서로 지정했다.

/도정신문팀

영해기점 현황

- ▲영해를 획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으로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약 22km)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정하는 기점
- ▲동해~서해까지 영해기점 총 23점 중 22번째 기점
- 위도 36-36-36.693 / 경도 125-32-35.534

서격렬비도 영해기점



북격렬비도

격렬비열도 위치도



동격렬비도



/충남도 토지관리과 제공

서격렬비도



음주운전 범죄입니다!

- 2023년 4월 17일부터 충남 도내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

음주운전, 선량한 이웃 살인행위!

-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자전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벌칙금 3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벌칙금 10만원!**

한 잔도 절대 안됩니다!

"과음한 다음 날 운전할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찰위원회

바쁘다 바빠! 현대인의 장 질환

공공의료원 칼럼

“40대 초반의 직장인 최모씨. 최씨는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음주를 하면 복통과 함께 소화불량이 생긴다. 가끔은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며 심한날은 출근길에 3-4회나 화장실을 찾지만 용변이 시원하지가 않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아마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이거나 직장인이거나 한번쯤 겪어 봤을 증상일 것이다. 반복되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위 및 대장내시경이나 필요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등의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음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분류한다. 이 질환은 기능성 질환이다. 따라서 위독한 병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체질적 질환임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먼저 자신의 증상이 생긴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스트레스, 피로감,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우선 원인이 되는 문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몸에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절하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좀더 질환에 대해 살펴본다면 과민성 장 증후군이란 배가 아프면서 배변 양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질환이다. 환자들은 주로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자주해요”, “술을 마시거나 매운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등의 증상을 호소

한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모두 과민성 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질환의 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복통이다. 즉 배가 아프면서 배변양상의 변화하여 설사가 변비가 발생하던지, 변을 본후 복통의 호전되는 증상 등이 3개월간 한달에 3일이상 지속될 경우 진단될 수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장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적인 요인, 음식에 대한 알러지, 장의 염증, 내장의 과민성 등이다.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 장의 운동기능이 예민해지고 수축이 되어 매가 아픈 것이다. 이에 장이 수축할 때 장내의 운동과(장의 내용물을 항문까지 전달하는 수축파)와 일치하면 설사가 발생하는 것이고, 운동파와 관련없이 전체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면 배가 아프면서 변비형으로 나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상에 따른 과민성 장 증후군의 분류는 변비형, 설사형, 그리고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교대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의 걱정은 장내 혹은 큰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지만, 기능성 질환인 과민성 장 증후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1) 50세 이상의 나이이거나 2) 대변에서 혈변이 동반이 되거나 3) 식사량에 비해 체중감소가 심하거나 하는등의 부대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김동환
서산의료원 가정의학과

범주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와 단위 쓰기

그림을 보고 해당되는 것을 찾아 빈칸에 개수와 세는 단위를 쓰시오.



보기
마리 벌 권 송이
채 그루 명

<개수> <세는 단위>

옷 1 벌

동물 사람 책

나무 꽃 집

충남광역치매센터와 함께하는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난이도 - 중하 ★★★★★

증진영역
기억력, 판단력, 개념분류능력

소요시간
10분 이내

일상생활 적용 영역
범주에 따라 분류하기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실습생 함미현 학생이 제작하였습니다.
위의 두 가지 활동은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이성이 교수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 1. 1로 '문' 2로 '10'을 8 줄 '10' 2 줄
'10' 1 줄 '1' 1로 9 줄 '1' 1 줄 : 10

일자리 정보

※문의 -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 041-330-4972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주)ECO A&T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명	041-582-5398	연 2,500만원 이상	논산	(주)우성양행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41-746-1111	월 224만원 이상
천안	마루어린이수영장(본사)	영양사	1명	041-574-1234	월 220만원 이상	보령	금화식품(주)	지게차운전원	1명	041-931-5679	연 2,800만원 이상
천안	(주)우인테크	배송·납품 운전원	2명	041-553-5612	월 250만원 이상	보령	(주)태영상사	배송·납품 운전원	5명	041-932-2450	월 250만원 이상
천안	(주)하코	섬유가공 준비 및 후가공 처리원	2명	041-582-2049	월 330만원 이상	보령	예성석재	석재 가공원	2명	041-931-0173	시급 9,620원 이상
아산	(주)엘림	회계사무원	1명	041-542-9236	연 3,100만원 이상	보령	사회복지법인 보령대한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041-936-9991	월 209만원 이상
아산	신성공업(주)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2명	041-532-2480	연 3,000만원 이상	계룡	주식회사오광	창고관리원	2명	070-4437-5645	연 2,400만원 이상
아산	(주)엘아이	반도체공정기술자 및 연구원	3명	070-4850-2157	연 3,000만원 이상	계룡	(주)성연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2-840-6662	시급 9,620원 이상
아산	주식회사동신이앤티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 조리사	1명	041-546-3932	연 2,600만원 이상	계룡	계룡장수요양병원	영양사	1명	042-840-7676	월 220만원 이상
당진	(주)씨앤에스산업	경리사무원	1명	041-358-8167	월 220만원 이상	계룡	주식회사내담에프앤비	쇼핑몰택배준비원	2명	042-826-2496	연 2,460만원 이상
당진	(주)일신정공	금속절곡기 조작원	3명	041-429-0081	연 4,800만원 이상	홍성	한마음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2명	041-641-7884	월 210만원 이상
당진	(주)명정플랜트	산업 안전원 및 위험물 관리원	2명	041-358-3616	월 350만원 이상	홍성	(주)삼일엘리베이터	전기부품·제품 조립·검사원	2명	041-632-3130	연 2,670만원 이상
당진	(주)코브인터내셔널	단조기 조작원	2명	041-363-5777	월 250만원 이상	예산	(주)로만	식품분야 단순 종사원	5명	010-5547-2710	시급 9,620원 이상
서산	주식회사 케이투에스	기타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6명	010-3599-0886	시급 9,620원 이상	예산	예당푸드(주)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1명	041-335-5116	월 220만원 이상
서산	(주)충남유통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명	041-664-8630	연 3,240만원 이상	태안	백화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1명	041-675-9425	월 205만원 이상
서산	신비오케이컬(주)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명	041-669-6425	연 3,500만원 이상	태안	삼다누팜농조합법인	농림어업단순종사원	2명	010-7115-7570	연 3,000만원 이상
서산	더케이텍(주)	지게차 운전원	1명	070-7547-8897	월 260만원 이상	서천	(유)건우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41-956-8522	연 3,800만원 이상
공주	(주)휴먼바이오	화학공학 시험원	1명	041-881-9201	연 2,800만원 이상	서천	(주)대보건설	건축시공 기술자	1명	041-953-5551	월 300만원 이상
공주	(주)엑스코	제조 단순 종사원	5명	041-552-5910	월 223만원 이상	부여	사자유통	택배원	2명	041-836-1250	월 260만원 이상
공주	공주삼성주강보호센터	주방 보조원	1명	041-400-8852	월 206만원 이상	부여	만수노인복지원	요양보호사	2명	041-836-1448	월 210만원 이상
공주	누리재활원	사회복지사	1명	041-854-6461	월 260만원 이상	금산	티에스패널주식회사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3명	041-751-8093	월 201만원 이상
논산	서창산업(주)	경리 사무원	1명	041-741-9162	연 3,000만원 이상	금산	창신하우징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2명	041-752-0309	월 250만원 이상
논산	(주)폴리텍아이앤씨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736-9232	월 300만원 이상	청양	(주)맨파워코리아	제조 단순 종사원	5명	010-6462-1189	월 260만원 이상
논산	대정요양병원	일반 간호사	1명	041-730-2883	월 360만원 이상	청양	버섯이야기	농업 단순 종사원	1명	010-9437-1207	월 250만원 이상



2023.4 문화달력



자료제공/충남문화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16 **히사시조 영화음악콘서트**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66-0155



23 김기춘 <우포생태사진展>

기간: 2023.04.15 ~ 2023.04.23
 장소: 태안문화예술회관 2층 갤러리
 시간: 09:00
 비용: 무료
 문의: 041-674-2192

30 **충남연정국악단 제34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화>**

기간: 2021.04.30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전석 5,000원
 대상: 7세 이상 입장 가능
 문의: 041-840-2204



최애리 작가 초대전

기간: 2023-03-29 ~ 2023-05-01
 장소: 모나무르 갤러리 카페
 시간: 10:00
 문의: 041-582-1004

옛날감성 충만한 당진 삼교호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충남 당진에는 해돋이 행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로 옛날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충남 당진 “삼교호 관광지”입니다.

삼교호 관광지는 삼교천방조제에 있는 관광지로, 1979년 10월 삼교천방조제가 완공되자 총 저수량 8400만톤의 거대한 삼교호가 만들어졌는데, 이 때 각종 수상 레저시설을 유치하여 관광지로도 개발된 곳입니다. 방조제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일품이라 해가 질 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당진 삼교호 관광지

삼교호 놀이공원은 예전에 부모님 손을 잡고 다녔던 놀이공원 느낌이 물씬 나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삼교호관광지에는 놀이공원 외에도 관광할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해양테마체험관과 함선을 공원으로 꾸민 함상공원이 그것인데요. 함선 내에 조성된 공원을 구경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선 내부에 꼭 한 번 들어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상공원 옆에도 휴식을 즐기고 바다를 관람할 수 있는 공원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데 공원내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으니 가족이 방문하여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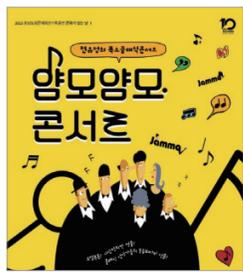
/도민리포터 여행하는청년

2023 임립개인전

기간: 2023.03.01 ~ 2023.04.26
 장소: 임립미술관 특별전시관 A동
 비용: 무료
 문의: 041-856-7749

전원경의아트살롱 <그림콘서트> 봄을 맞은 파리

기간: 2023.04.26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9:30
 비용: 전석 1만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문의: 041-350-2911



암모양모 콘서트

기간: 2023.04.26
 장소: 충남도청 문예회관
 시간: 19:30
 비용: 전석 5,000원
 대상: 전체관람가
 문의: 041-630-2900

20 **제84회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66-0155

27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서산의 꿈』 -클래식

기간: 2023.4.27(목)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문의: 041-661-8023

월간 사서고생 4월 강연 안내 악력이 출몰하는 세상(칼 세이건 著)

기간: 2023.04.27
 장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1
 시간: 19:00
 인원: 30명
 문의: 041-635-8000



•김석영 작가 초대전 <이어진 생명들>

기간: 2023.04.05 ~ 2023.05.30
 장소: 모나무르 갤러리 2,3,4관
 시간: 10:00
 문의: 041-582-1004



•2023 충남역사박물관 정기특별전 충청의 문을 열다

기간: 2023.4.8 ~ 2023.8.31
 장소: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야외무대 및 1층 기획전시실
 시간: 14:00
 문의: 041-856-8662

21 **세레나트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보고 미술로 듣다'**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문의: 1566-0155

헤어드레서
 장소: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041-930-3710

28 **아트밸리아산 제62회 성웅이순신축제**

기간: 2023.4.28 ~ 2023.4.30
 장소: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광장, 곡교천 일원
 시간: 08:00
 비용: 무료
 문의: 041-534-2634

22 **구본형 플루트 독주회**
 문의: 041-350-2911

오누이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041-350-2911

29 **지혜로운 프린세스 신데렐라**

기간: 2023.4.29(토)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1:00
 비용: 35,000원 예매가: 22,500원
 대상: 만 2세 이상
 문의: 041-350-2911

논산시립합창단 제3회 기획연주회

기간: 2023.04.28 ~ 2023.04.29
 장소: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
 시간: 09:00
 비용: 무료
 문의: 041-746-5950



4월 그림책 원화 전시 기간밤 (루리 작가)

기간: 2023.04.03 ~ 2023.04.29
 장소: 홈페이지 및 도서관 1층 북독
 시간: 09:00
 비용: 무료
 문의: 041-934-0929



사서들의 서재



(탈서를 지망생입니다/김미향/한겨레출판사/2022)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는 인구 과밀 현상·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오랜 숙제를 안고 있다.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

나만의 '온탕' 을 찾아서

치시를 설치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 밖에도 수도권외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각종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서울 등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고, 각종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서울 살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서울살이를 꿈꾸는 사람들 못지않게 탈(脫) 서울을 꿈꾸는 이들도 있다. 김미향 작가의 <탈서울 지망생입니다>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작가는 대도시의 삶을 '열탕'에, 사회 인프라가 거의 없는 농어촌의 삶을 '냉탕'에 비유한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탈서울을 원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이유 등을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전하

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작가는 자신보다 앞서 탈서울에 도전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이 전하는 시행착오와 실질적인 조언들을 들려준다.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열탕도 냉탕도 아닌, '나만의 온탕을 찾는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각기 다른 여건과 환경의 20, 30, 40대들이 어떠한 기준과 과정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나갔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등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은, 탈(脫) 서울을 꿈꾸는 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오랜 숙제를 풀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진술기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확신으로 '맨땅에 헤딩'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서유채농원 홍민정(36) 대표
양어양식+수경재배 융복합
아쿠아포닉스 농법 1세대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확신 하나로 맨 땅에 헤딩한 청년이 있다. 태안에서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통해 10년째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홍민정 서유채농원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란 양어양식과 수경재배를 결합한 합성어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는 농수산 융복합업이다. 물고기가 배변을 하면 암모니아로 바뀌는데 이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하여 식물에게 영양분으로 제공하고 식물은 이 영양분을 흡수해 깨끗한 물을 다시 물고기에게 100% 되돌려준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물고기를 양식할 때 나오는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가뭄에도 유리하며, 물 사용량도 절약할 수 있다. 물고기를 같이 키우기 때문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서유채농원 300평 규모의 스마트팜에서는 향어, 비단잉어, 메기, 철갑상어 등 다양한 어종과 유럽샐러드채소를 주작목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

홍민정씨는 농업과는 거리가 먼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청년이었다.

우연히 시청하게 된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 산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찾던 중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의 분비물만을 이용해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해 알게 됐다. 이후 미래 농법에 대한 확신 하나로 3년째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에 있는 농장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귀국 후 2014년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충남 태안군으로 귀농했다. 연고지도 없이 찾아온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비료 없이 물고기로 채소를 키운다고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사기꾼'이라는 비난과 무시를 받으며 사람들의 고정



서유채농원 홍민정 대표가 수조 옆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관념을 깨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한국의 사계절이라는 기후특성과 맞는 조건을 찾기 위해 어종부터 식물까지 하나하나 테스트를 거치며 3년간 연구를 거듭했고 국내 상황에 맞는 어종과 품종을 개발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농업을 시작한 2018년도에 생긴 청년창업농 지원도 큰 힘이 됐다. 홍민정씨는 "농업 관련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힘이 됐다"며 "여러차례 교육과 4H의 도움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통해 흥 씨는 채소 생산, 판

매부터 학생체험교육, 강의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내부시설 공사, 컨설팅 등까지 가능한 만능 농업인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 3억 원을 달성했다. 또 2021년부터는 법인을 설립해 벤처농업 스타트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흥 씨는 더 큰 꿈을 그리고 있다. 아쿠아포닉스 농업의 대중화와 아쿠아포닉스 체험과 치유농업을 연계한 스마트양식관 조성도 목표다. 이를 위해 단국대 대학원 웰니스 바이오 융합학과에 들어가 농업 연구와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이해든 deun127@korea.kr



아산수필문학 창간호 '봄, 나비 날다' 출간

10여 명 작품 60여 편 수록

아산지역 수필문학 동호인들의 모임인 아산수필문학(회장 민수영) 회원들이 지난 4월 8일 한국연예협회 아산지부 공연장에서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호 '봄, 나비 날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사진)



변진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통기타 '어울림'의 식전 공연에 이어 시상송가 윤희재 씨가 민수영 작가의 작품 '고백'을 낭독했고, 한현희 편집장의 출판과정 보고, 김정

아 작가에 대한 회원 공로상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민수영 회장은 "회원들이 소년적 꿈 꾸었던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아직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 창간호

를 출간하게 됐다"라며 "작은 도토리 한 알이 참나무로 성장하듯이 우리 회원들도 쑥쑥 성장해 대한민국 문단에 길이 남을 명작들이 아산에서 발현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창간호 '봄, 나비 날다'에는 민수영 회장을 비롯해 김기옥·김여란·김정아·변진영·송용배·유인혜·이순자·정은희·한현희 등 10여명의 작품 60여 편이 수록돼 있다.

아산수필문학회는 수필가 전홍섭 선생 강의로 진행된 문예창작교실 수료생들로 구성됐다. /은양신문 제공

철이 삼촌, 흥성 산불 이재민 구호 물품 전달

한재선행상 상금으로 물품 구입

흥성의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이철이 대표가 최근 '제2회 한재선행상' 수상과 함께 전달받은 상금으로 이번 흥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사진>

'철이 삼촌'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27년간 흥성지역에서 아낌없는 봉사 정신으로 활동을 펴 2006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2년 제7회 유림경로효친 대상, 2017년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상복과 속옷 등을 마련했다"라며 "비록 작은 도움의 손길이지만 하루 빨리 피해 복구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일상으로 회



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주신문 제공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충남청년! 길을 찾다!

취업.. 어렵다

어렸을 땐 과학자도 되고, 선생님이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청년의 청춘을 가치있게 만들고 싶은 분! 도전이 두려워 울스렸던 분 모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어? 나한테 맞는 길 찾을 수 있게 프로그램 제공? 거기다 이수하면 50만원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구직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 및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일정

참여신청	▶	참여자 개별 안내	▶	참여자 사전 문답표 작성
▶		참여자 프로그램 배정 / 교육거점 배정	▶	
▶		참여자 1:1 밀착상담 (초기상담)		

모집기간
5월 1일(월) ~ 5월 14일(월) [14일간]



농촌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내포칼럼



홍승지
충남대학교 교수

최근 발표된 인구동향조사 출생 및 사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이다. 2020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의 1.24명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인구가동이나 사망률의 변동이 없을 경우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소멸을 단지 기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대 수명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빠르게 고령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은 2022년 17.5%로 2010년 대비 6% 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46.8%로 전국 고령화율인 17.1%보다 3배 가량 높다. 이처럼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 유

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 특히,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은 농촌지역 노인복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노인돌봄 관련 연구에 따르면 먼 지역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전체 141만 명 중 27%인 38만 5천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인들 중 공적 돌봄 대상자는 22만 명이지만, 이들의 75%인 16만 5천 명은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20년 기준). 결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돌봄 서비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 지역에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부족하다는 것이다. 먼 지역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의 인구당 시설수가 모두 도시지역보다 적다. 노인 인구가 700명 이상인 면에 최소 하나의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지만 전국 면지역에서 40% 정도에만 해당 시설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돌봄 시설의 접근성이 취약하는 점이다. 농촌지역은 대중교통 여

건이 열악하여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버스가 하루 3회 이하로 운행되거나, 아예 운영되지 않은 먼 지역이 20%에 이를 정도다. 결국 농촌지역의 노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거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시설 및 인력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요구에 맞게 보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의료나 돌봄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선도사업 기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자체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보편화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의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불리한 환경에서 먼 단위 미중족 돌봄 수요를 해결하는 역할을 지역사회가 수행하고, 주민이 참여한 돌봄조직이 돌봄을 기획·운영·관리하고 주민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조직이 자치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농촌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직접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협력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들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활용 사업으로 농촌지역 돌봄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한 자금의 활용 방안으로도 좋은 사업이다. 더 늦기 전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
기대 수명 늘며 빠르게 고령사회 변모
청양 ‘찾아가는 의료원’ 주민들로부터 호평
”

노인이나 장애인이 현 거주지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마련하였는데, 1단계인 2022년까지는 선도사업 시설과 핵심 인프라 확충, 2단계인 2025년까지 재가서비스의 대대적 확충 및 재정 전락 마련, 그리고 3단계인 2026년 이후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

면에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충남도 지자체 중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찾아가는 의료원’과 같은 서비스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청양군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 이후에도 2021년에 선정된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양군의 사례는

김태흠 지사의 2년차 시·군 방문

출입기자 칼럼



김종곤
청충투데이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임기 두 번째 시·군 방문에 올랐다.

지난 10일 청양군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3일 예산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취임 후 처음 진행한 시·군 순회는 권역별 발전을 약속한 김지사의 타당한 행보였고, 호응도 좋았다고 평가한다.

청양의 경우 지난해 25건의 요구사항이 접수돼 충남도가 11건을 완료하고, 10건 추진, 4건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단순 민원 접수에서 그치지 않고 김지사는 시일 내 지역 공약사항을 하나둘 달성하며 실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충남도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 ▲천안 종축장 부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가칭 내포역 신설 사업비 편성 ▲내포종합병원 설립 ▲도남부출장소 금산 설치 ▲서천 김 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을 이뤘다.

임기 첫 시·군 방문이 도민에 충남 발전의 비전을 알리는 자리였다

면, 이번 2회차는 그 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설득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 산불 성금 모금,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현수 등 정책적으로 자발적인 도민의 지갑 열기를 독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소멸을 막고자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와 답례품 등이 제공된다.

당초 답례품이 지역별 기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모았으나, 지난해 9월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도민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활성화(37.8%)’와 ‘애향심(25.1%)’이 대표적인 참여 이유로 꼽혔다.

김지사가 시·군 방문에서 도민에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동네가 아닌 옆 동네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피해가 극심했던 산불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2일 홍성, 보령, 금산, 당진 부여 등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축구장(0.714ha) 2천300개가 넘는 면적에 달하는 1647ha가 피해를 입었다. 도민 54세대 89명이 보금자리를 잃었고, 건물 피해가 주택 74동 포함 205동, 가축 피해가 8만 1153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에 정부가 지난 5일 홍성, 보령, 금산, 당진, 부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복구와 피해민 지원에 국비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실제 지원을 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내달 말일까지 피해민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사는 시·군 순회 현장에서 만난 도민에 성금 동참을 진심 어린 자세로 호소할 때 산불 피해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도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챙기고 해결하는 도지사의 ‘힘센’ 면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산공항 건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굵직한 숙원 사업을 하나씩 해결할 때 김지사의 호소력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작고 사소해 보이는 민원에도 귀 기울이고 고민하는 ‘경청하는 리더’의 자세도 중요하다.

청양 방문에선 마을 하수관이 수시로 막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달라는 등 민원성 질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수백억 예산을 따오는 사업에 비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자에게 일상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도민들에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도지사가 진심으로 헤아리고 함께 고민할 때 도민이 도정을 신뢰하고 함께 동참해야 하는 정책에 기꺼이 따를 수 있으리라 본다.

울보 선생님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27)



소중애 동화작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울보였다. 짓궂은 언니들은 심심하면

“중애야, 왜 울어?”
난데 없이 물었다. 장난의 시작이었다. 나는 못 들은 척 했다. 언니 셋은 합동으로 공격했다.

“정말, 중애가 울고 있네?”
“어? 중애야, 왜 울어?”
“어디 아파?” 몇 번의 공격을 받고 나면 나는 그녀들에게 휘말려 소리쳤다.

“내가 왜 운다고 그래?”
“지금 울잖아!”
“중애 운다 운다”
나는 입을 실룩이며 소리쳤다.

“나 안 운다고!”
“지금 울잖아” 나는 건디지 못하고 우왕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않고는 개미지옥 같은 놀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왜 운다고 그래?”
영영 울면 언니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번번이 넘어갔다.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도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번번이 실패하였고 어른들 앞에서는 괜히 울먹이며 말을 하지 못했다.
울보 아이가 커서 울보 어른이 되

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도 나는 울보였다. 부임 첫날부터, 떠돌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울먹이가 집에 와 대성통곡하였다. 쉬는 시간에 책상 아래에서 뭘 줌의 척, 구부리고 울기도 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이런 일들을 일기에 쓰곤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울보선생님’이었다.

어느 날 인터넷 서점 독자의 글에서 어떤 엄마가 쓴 글을 보았다. 자기 딸이 갓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무서워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울었다. 그런 아이가 ‘울보선생님’을 읽고 “선생님도 울어?”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더니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했다. 이제 나는 울보가 아니다. 영화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우는 것 이외에는 울지 않았다.

얼마 전에 이주여성들 낭독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 한국에 와서 적응할때까지 겪었던 어려움, 떠나온 모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낭독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낭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낭독을 중단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랬다. 우리는 울음이 터지면 흐느낌으로 이어져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그녀들은 달랐다.

‘아하, 나라마다 울음 호흡이 다르구나’ 내 나름 정리하였다.
울보였던 나는 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잘 알고 있다. 울보였던 나는 이제 남의 눈물을 닦아 주는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전달

충남도의회는 4월 13일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조길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국민의힘 김응규, 더불어민주당 조철기)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정희영 사무처장을 통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4월 2일 충남에서는 홍성, 당진, 금산, 서산, 보령, 부여 등 6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홍성이 1454ha에 달했으며, 보령 70ha, 금산 40ha, 당진 68ha, 부여 15ha 등 총 1647ha로, 축구장 2300여개가 넘는 면적이다.

충남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도의원·공인회계사 등 14명 위촉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 검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3일 도의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충청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2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 신한철 의원(천안2), 박미옥 의원 3명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전직공무원 3명 총14명이 선임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동안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이 집행한 15조원 이상의 2022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은 “결산검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대표위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형식적 결산검사가 아닌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

홍성현 의원 의정토론회

최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의 일탈행동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의 요청으로 4월 1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토론회에서는 홍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중 천안여자중학교 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오환균 충남교육청 장학관, 신상원 천안병천중학교 교사, 임재희 천안불당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연중 교장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중학교 의무교육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현재 학교교육이 위기에 빠진 원인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총총한 학생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통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 유도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현재 학교현장은 학생 일탈행동에 대한 대처수단 미비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정회, 2023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대면회의
토론회 등 올해 사업계획 논의

충청남도의정회(회장 신재원)는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다가 3

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의정회를 다시 활성화하고 2023년 사업과 토론회, 연찬회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사회에는 신재원(4·5·6·10대) 회장을 비롯해 이걸재(4대)·이재창(5대)·이흥근(4대)·김종성(4대)·강동복(7대)·이중웅(7대)·장기일(4·5대)·최의환(8대)·홍표근(7·8대)·이제남(7대)·유기복(9

대)·박상무(9대)·정순평(5·6·8대)·김정숙(9대) 등 역대 충남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신재원 회장은 “충남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연찬회 개최, 2023년 회보 발간 등을 통해 의정회를 다시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충남도의회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본격 시행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4월19일 서천 서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5개 학교(579명)에 대한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운영을 본격 시행했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은 서면초등학교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선거 등 의장 선출과정을 체험하고, ‘복도에서 뛰지 않기’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교내 복도에서 뛰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서천 서면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모습.

의견을 개진했다.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의장이 되어 회의 진행을 하고, 선거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신영호 의원(서천2)은 “도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자,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충남도의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참여를 통해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을 경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시론

대형산불, 예방과 대비가 최선이다



이종화
충남도의회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산불이 점차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37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242건보다 1.5배 증가했다. 지구촌 대형산불도 증가했는데,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산불이 2030년 14%, 2050년 30%, 2100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불로 인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토양 결집력이 약해져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산불의 면밀한 원인진단과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홍성산불의 현장에서 화재진화 인력의 사투를 목격했다. 산불 발생후 3일만에 비가 내리고 진화되었지만, 440만평의 산림이 황폐화되었고, 민가가 밀집한 지역의 산불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마주했다.

이에 필자는 몇가지를 제안한

다. 첫째,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산불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진화 위주의 정책에서 예방관리 정책인 산불위험 저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낙엽, 수확벌채 등 산속의 연료를 제거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파쇄기를 운영하는 등 화재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예방관리를 위한 미국의 WUI(Wildland Urban Interface)정책, 즉 산림주변 건축시설물 이격거리 주기와 주택 주변의 산림훼손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넷째, 산림에 저수조 등 진화용수시설을 확대하고 강풍에도 운항 가능하고, 대용량의 물을 운반하는 초대형 헬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GIS기반 드론이나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초동단계의 예찰 및 진화를 강화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했다. 산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점점 대형화되어 가는 산불재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박기영(공주2)



김기서(부여)

동행 “금강 물길따라 백제문화권 발전 모색해야”

백제문화권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백제문화제는 고대 백제왕족의 옛 도읍지였던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적 역사 재현문화축제이다. 69년을 이어왔고,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이번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2023 대백제전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고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격년제 개최는 문화제 개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공동 개최를 찬성한다. 두 도시는 백제라는 역사적 공통분모를 가진 문화·관광 도시로서, 백제문화제가 방문객들에게 도시를 각인시키고 유인할 수 있는 큰 매개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축제를 계기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속해서 지역으로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 문화제 개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감성 자극과 흥미를 더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대백제전으로 준비해주길 바란다.

백제문화제는 전국 유수의 축제와 비교했을 때, 한가지 테마를 갖고 두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는 특이점이 있다. 그래서 두 지역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유발되고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다. 볼거리가 많아도 정체성이 없는 축제는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간 부여는 제례 중심의 옛 문화 재현행사 위주로 명맥을 이어왔으나, 공주는 보여주기 위주의 행사에 치중해 왔다. 백제문화가 해상왕국이라 표현돼왔던 만큼, 앞으로 공주는 금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을 부각한 행사로 발전시켜 방문객들에게 축제의 정체성·전통성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두 지역은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해 동반자이면서 경쟁자의 사이를 이어왔지만,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은 소홀했다. 그러다 보니 전부 소멸성 이벤트성으로 예산만 소모되고 투자 대비 남아있는 것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 감성적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두 지역을 이어주는 통로로 가장 크게 금강을 꼽을 수 있는 만큼 금강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두 지역의 발전을 모색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의 경우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계획 중이다.

충남의 역사·문화를 접목한 관광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속해 가겠다. 흔히들 도시재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라 여기는데, 있는 것을 보존하고 편리하게 가꿔주는 것이 도시재생이라 판단한다. 개발 위주의 사업을 계획하기보다 보존·관리를 통해 관광 분야로까지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가고 싶다.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로 인한 지역 변화는?

문화제 개최에 있어 두 지역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왔지만, 지리적 위치 등으로 지역적 소외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공동 개최는 협업을 통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피하고 갈등을 줄이는 등 지역의 상대적 빈곤을 채워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백제전은 중복을 피하고 나름의 새로움을 찾아가는 전환 포인트가 될 거라 판단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고조된 시골로 발길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문화제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숲생태 등을 편입시켜 풍성한 대백제전을 만들어가길 하는 바람이다.

지역 특색을 살려 나갈 방안은?

현재 부여는 백마강 둔치에 대규모 국가정원(생태정원) 조성을 계획 중이다. 대규모 역사단지를 배경으로 한 백마강 둔치 일원 130ha에 부여의 역사성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정원을 조성해 2028년 국가정원으로 승인받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되면 부소산부터 부여도심, 공남지, 백마강변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완성되고 나아가 백제문화단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관광거점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망 타워를 중심으로 수륙양용버스·수변열차·열기구 체험·금강자전거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시너지가 배가될 것이다.

공주와 부여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은?

각자도생 전략은 백제를 통해 한데 묶인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두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 흥행에 연연하기보다 지역 본연의 색깔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야말로 지역이 살고, 대백제전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방안이라 여긴다. 두 지역은 물론 인근과 함께 연계해나갈 수 있는 관광지와 머무를 수 있는 품격있는 숙박업소 등의 과제도 시급하다. 특히 금강을 테마로 활용한다면 두 지역뿐 아니라 인근 백제권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금강 국가정원을 위한 협력이 구상 중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은 어디에 중점을 둘 건인가?

상임위 활동과 농업발전을 기본 바탕으로 동시에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이하 미소불) 환수작업 완수에 앞장서겠다. 미소불은 백제의 미소이자,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으로 불린다. 2018년 일본에서 겨우 발견됐으나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백제미소불환수추진위원장으로써 백제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유산인 미소불 환수에 사력을 다하겠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가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소리를 들겠습니다.



▶ 지역민원상담소란?

충남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 총 1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민상담소입니다.

▶ 지역민원상담소 상담신청

내 집에서 편하게 전화예약, 운영시간 내 방문 시 즉시상담



지역명	상담의원	주소	전화번호	지역명	상담의원	주소	전화번호
천안1	홍성현, 신한철, 안종혁, 신순옥, 이현숙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5, 3층	041-554-0008	계룡	이재운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042-840-5719
천안2	구형서, 유성재, 김도훈, 오인철, 정병인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041-566-3702	당진	이철수, 이완식, 최창용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041-358-3250
천안3	박정수, 김선태, 양경모	천안시 서북구 미라16길 14	041-574-0007	금산	김석곤, 김복만	금산군 금산읍 후곶천길 53, 2층	041-751-5555
공주	고광철, 박기영, 박미옥	공주시 백미고을길 17-12 2층	041-855-2242	부여	김기서, 조길연, 김민수	부여군 부여읍 부장대로 28, 2층	041-835-3330
보령	최광희, 편삼범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5, 2층	041-936-5388	서천	전익현, 신영호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041-952-1650
아산1	오안영, 김응규, 박정식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041-547-5927	청양	김명숙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301호	041-943-0613
아산2	조철기, 안장현, 지민규, 이지윤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71-4, 2층	041-546-1101	홍성	이상근, 이종화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041-633-2333
서산	김옥수, 이용국, 이연희	서산시 연암1로 14, 4층	041-665-1235	예산	방한일, 주진하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6층	041-333-9606
논산	윤기형, 오인환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041-734-0064	태안	윤희신, 정광섭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1(1층)	041-675-0313

※ 각 지역별 상담소의 위치,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주민 복리 사업 시행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
-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 +
-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 +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